

##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역사과 교육과정과 역사교과서

# A Study on the Curriculum and History Textbook of the Christian World View

허은철 (Eun Chul Heo)\*

### Abstract

Value neutrality that is demanded in the field of history education in Korea and history textbooks grounded on the national curriculum work currently as barriers when Christian history teachers give history lectures in their clas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history curriculum and history textbooks in Korea from the Christian viewpoint of the world grounded on the Bible in order to find out ways for teachers having a Christian viewpoint of the world to give lectures properly with those history textbook.

History textbooks should provide students with a righteous view of the Christian world and information with statements included in them. But it does not mean they should describe history biasedly in the Christian viewpoint. If like current textbooks, they describe Christian events only based on facts or outcomes with no explanation about why it has happened, students may end up having misconceptions. In order to explain Christian events properly and get rid of any controversies associated with biasness, when describing any Christian events, it is necessary to write a Christian view of the world briefly so that they can understand why such events have happened unavoidably.

It is needed to provide historic distinctiveness associated with Christianity as well as explanation about general Christianity at least. A course should be set to describe the importance and meaning of Christianity itself rather than religious biasness. If you avoid accurate descriptions about the Christian view of the world to eliminate controversies related with religious biasness, it may rather result in arousing anti-Christianity sentiments and social conflicts, too. Therefore, above all, experts of history equipped with a systematic Christian view of the world should participate in writing history textbooks actively and describe related contents briefly but accurately.

**Key Words** : Christian viewpoint, history curriculum, history textbooks, history teacher, describing history

---

\* 충신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Chongshin University),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hec03@hanmail.net  
2018년 08월 07일 접수, 08월 28일 최종수정, 09월 14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18년도 총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1. 서론

역사교육의 목적은 그 관점에 따라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 ‘역사의식의 육성’, ‘교양으로서의 역사’ 등으로 다양하다. 아직까지는 역사교육의 목표인 역사적 사고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교육 전문가들은 역사교육의 목표를 ‘역사적 사고력의 증진’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고력은 연대기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 등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 가장 상위의 역사적 사고력은 역사적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판단력은 다시 말해 역사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역사의식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역사교사의 역사의식은 그들의 가치관이나 경험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역사 교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학생의 역사의식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 공교육에서 역사교사는 자신의 역사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치중립적인 것을 요구받는다. 수많은 역사교육계의 논쟁 결과로 밝혀진 것처럼 이미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진 역사교사가 가치중립적인 역사교육을 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 교사는 국가의 교육과정 기준에 맞춰 제작된 역사교과서를 따라서 역사수업을 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는 가치중립성과 더불어 역사교사가 역사수업을 전개하는데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역사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가치중립성과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한 역사 교과서는 각자의 세계관을 가진 역사 교사가 역사 수업을 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있다.

기독교 역사 교사는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타락-구속이라는 큰 틀로 설명할 수 있다. 역사 교육과정과 역사 교과서가 기독교 세계관과 괴리가 있다면 기독교 역사 교사는 역사 수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검토함으로써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역사 교사가 어떻게 역사 수업을 전개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는 기독교 역사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독교 세계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독교 역사관은 어떠한 것인지 밝히고, 창조-타락-구속이라는 틀에서 현행 역사 교과서

의 서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9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집필된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3종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검토할 것이다.

역사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기독교 관련 내용만큼은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의 의미와 중요성이 잘 나타나 있는지, 기독교가 정치와 경제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은 것이며 이데올로기의 수단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지 않은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역사교과서에서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게 되면 학생들은 기독교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왜곡된 역사 교과서로 인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갖게 될 것이며 심지어 반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될 위험성이 있다. 학생들이 한번 학창시절 왜곡된 역사 교과서의 영향을 받아 형성한 세계관은 그들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쉽게 수정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왜곡된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통합에도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한국의 역사교과서 검토 작업은 향후 역사교과서를 서술할 때에 기독교와 관련된 개념과 사실 등 사소한 오류를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서술 태도를 수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기독교 세계관이 한국의 역사교과서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 II.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과 교육과정

### 1. 기독교 세계관에서 역사관

기독교 세계관의 구성 요소로 신관, 역사관, 사명관, 윤리관 등을 들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의 진리에 따라 세상을 보는 안목이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은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신국원, 2005: 45).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은 첫째, 중생한 인간들의 영적인 세계관이다. 둘째로는 중생자의 영적 관점이 결국 이 세상을 성경적 세계관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도록 한다고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령의 증거가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

로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속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즉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를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히브리적 관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을 때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시며 메시아적 사역을 하실 때부터가 ‘종말’이다. 그러므로 이런 입장에서는 신약 성도들의 관점은 결국 이런 의미에서의 종말론적 관점일 수밖에 없다(이승구, 2007: 48-52).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구조는 창조, 타락, 구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세 가지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필수 요건이며, 특히 개혁주의 세계관은 성경의 근본적 진리인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에 기초한다.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골격인 창조, 타락, 구속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신국원, 2005: 45).

첫 번째로 살펴볼 요소는 창조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창 1:1),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였다(창 1:26). 이 말씀(창 1:26)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먼저 인간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방식으로 창조하시는 의지를 갖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창조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피조 세계에 대한 인간에게 주신 것은 ‘문화명령’이다. 하나님께서는 옛세 동안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이 피조 세계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이 관리하도록 위임하셨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으며(창 1:28),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창 2:15)”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인간의 선한 문화 활동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관리자, 청지기로서 피조 세계를 소극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를 조작,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양승훈, 1999: 63-68).

다음으로 타락이다. 인간의 타락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나있다. 사탄은 뱀을 통해 하

와를 유혹하였고, 하와의 권함을 받고 결국 아담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들 간의 관계가 훼손되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사이에 숨은 것은(창 3:8) 하나님과 인간의 훼손된 관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데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였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롬 1:25)이 곧 우상숭배이다. 인간은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 닮은 모습에 따라 문화를 형성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그 분의 속성을 문화에 반영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의 모습을 따르게 된다. 이런 문화는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타락한 탕자 문화를 만들었고, 바벨 문화를 형성했다(창 18장, 19장).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창 11:4)고 모의하였다. 오늘날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의 이면을 보면 예외가 없이 우상숭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배격하고 인간의 이성을 섬기던 계몽시대에는 이성을 우상화하였고, 현대 사회에는 과학기술이 우상이 되어 무신론적 과학기술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양승훈, 1999: 73-91, 196).

마지막으로 살펴 볼 요소는 구속이다. 구속은 피조 세계가 사탄이 왕 노릇하는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 상태로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구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되어 훼손된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회복을 포함하여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 인간 스스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훼손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회복이란 말은 화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화해는 하나님과 범죄 한 인간의 화해이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신이 먼저 화해를 하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5:19)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롬5:8).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

고(롬3:25),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로 인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갈3:13). 구속은 인간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고, 재창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구속을 통해 회복된 인간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문화 추종자가 아니라 문화 형성자가 되어야만 한다(양승훈, 1999: 93-107).

기독교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 역사관은 성경에 내재한 큰 구속사적 흐름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역사교사의 역사교육 목표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독교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 역사관의 특징은 창조사관, 섭리사관, 종말사관, 보편사관 또는 역사의 세계사적 성격,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직선사관, 역사적 존재로서 인간의 지위 등의 여섯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들 외에 창조와 종말을 다루는 기독교 역사관의 성격과 연관되는 특징으로서 거시사관과 마지막으로 구속 또는 구원 사관을 들 수 있다(김봉수, 2003: 79-80). 기독교 역사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독교 역사관의 기초인 세 가지 전제의 이해와 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다. 그 전제는 첫째, 먼저 역사의 動因을 하나님으로 보며 하나님이 역사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섭리사관)과 다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뜻에 따라 역사를 일직선상으로 인도한다는 것(직선사관과 구원사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역사의 완성으로 역사에서 그가 계획하신 목표대로 이끄신다는 것(종말론적 사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권태경, 2002: 141).

베빙턴은 근대의 여러 역사관 유형 가운데 기독교 역사관을 유형화하면서 이를 토대로 새로운 기독교 역사서술 방식을 제시하였다. 즉 1) 하나님이 심판과 자비 같은 행위를 통해 역사에 개입하며 2) 역사를 심판과 구속이라는 목적을 향해 일직선으로 인도하시며 3) 자신이 계획한 목적지로 이끌어 가신다는 섭리사상을 체계화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역사과정에 개입하신다는 점을 기독교 역사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기독교 역사가는 이러한 믿음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드러내는 변증법적인 과업을 맡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역사학계가 기본적으로 나뉠의 전체에 대한 연구자들의 확신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기독교 역사가들도 충분히 기독교적 전체에 대한 확신에 근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섭리사관도 배제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았다(이진모, 2005: 156-157).

기독교 역사관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

고 계시는가를 인식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기록 외에 역사의 변화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간섭하심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기독교 역사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과 역사적 인물의 활동에 관하여 해석을 할 때, 기록된 계시로서의 성경을 유일한 기준과 척도로 여길 뿐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전개된 구속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성경 역사 이외의 역사기록에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기독교 역사가들은 성경에 명시된 원리를 가지고 일반 역사에 나타난 사건들과 사실들을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심판하시지만 그 시기와 진행과정은 아무도 알 수 없다(홍치모, 1989: 6-7).

## 2. 역사과 교육과정의 기초로서 기독교 세계관

모든 교육과정은 특정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특정한 가치와 신념을 반영한다. 이는 교육과정과 관련한 모든 결정들 즉, 무엇을 가르칠까, 어떤 내용을 강조할까, 이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할까,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등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에 상관없이 개인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이정미, 2008: 11).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규범에 따라서 문화의 모든 영역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름 받고 일한다.(Van Brummelen, 이부형 역, 2006: 63-64).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역사 교사들은 하나님의 문화 사역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독교적 역사관에 기초하여 역사를 잘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역사교육과 기독교 역사교육은 어떠한 점에서 구별되는가? 가장 큰 차이는 역사 교사의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 교사가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역사 수업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역사교사의 역사관은 크게 기독교 역사관과 일반적 또는 세속적 역사관으로 구별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과 지상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에게 공통된 이 세상의 역사는 일반사이다. 한편 구속사는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역사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성 사람들인 기독교인들은 일반사와 구속사 두 유형의 역사를 모두 인식하고 인정하지만, 지상의 도성 사람들은 일반사만 인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게 일반사와 구속사는 구별은 되지만 분리는 될 수 없다(김중희, 2013: 198). 로이 스완스트롬(Roy Swannstrom)은 이 두 유형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기독교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데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방법이 있다. 하나는 타락과 구속의 장대한 드라마요 다른 하나는 좀 더 국한된 사건 서술이다. 그런데 구속사의 입장에서 는 인류 역사의 전 과정의 의미를 역사 외부의 어떤 근원에서 찾고 있으며 따라서 구속사는 문서상의 자료에 의해 제시된 평범한 역사적 증거의 영역 밖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강의실 안의 역사는 증명 가능한 좀 더 현세적인 사건들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Swannstrom, 홍치모 역, 1982: 64).

위에서 본 것처럼 기독교 역사관과 일반적인 역사관은 관점이 상이하다. 기독교 역사관은 타락과 구속에 관한 역사관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역사관이 세속적인 사건 중심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역사관에서는 역사 밖에서 그 의미를 찾지만 일반적인 역사관은 역사 내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역사교사는 상이한 두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 수업을 하게 되지만 그 둘 사이의 위계는 분명하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역사 교사는 기독교 세계관의 큰 틀 안에서 일반적인 역사관을 아우르면서 역사 수업을 전개해야 한다. 그 둘은 분명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역사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기독교 역사관과 일반적인 역사관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 교사가 기독교 세계관의 큰 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학교 현장에서 역사교육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교육인 것이다.

현재 역사 교과서의 목표와 내용 체계의 큰 틀은 국가 교육과정이라는 법적 문서로 구체화 되어 있다. 그러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다시 역사교사와 역사교과서라는 매개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를 통해 전수된다. 비록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역사학습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역사 교사이다. 역사교사는 자신의 역사관을 역사교과서라는 수단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기독교 역사 교사는 역사과 교육과정을 기독교 세계관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 역사과 교육과정의 실현과 기독교 세계관의 형성이라는 2개의 목표가 상호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절충하고

보완할 수 있어야 하고 역사의 본질에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역사과 교육과정의 방법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역사학습에 있어서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그 방법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학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식하고 역사학습과 관련하여 여러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학생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교사는 역사 수업을 할 때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수업의 과정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동료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배움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내러티브이다. 뤼젠은 역사가 일반적으로 감각과 의미를 획득해 왔던 시간이라면, 이 획득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야기 즉 내러티브의 수단을 통해서라고 말한다. 그는 내러티브를 역사적 내러티브와 일반적 내러티브로 구분하고, 역사적 내러티브는 3개의 질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첫째, 역사적 내러티브는 기억을 동원한다. 둘째, 역사적 내러티브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연속성을 지닌다. 역사적 내러티브는 시간의 실제 경험을 인간의 의도와 기대감에 적응시킴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현재 생활과 연관되게 만들고 미래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한다. 셋째, 역사적 내러티브는 그것의 발화자와 청취자들 간의 동질성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다. 이 세 가지 특징에 의해 역사적 내러티브는 시간 속에서 실제 생활의 방향을 찾게 된다고 한다(허승일, 2009: 276-279). 따라서 역사교육에서는 일반적인 문학적 내러티브와 구별되는 역사적 내러티브에 주목해야 한다. 역사적 내러티브는 문학적 내러티브와 다르게 내러티브에서 과장된 기대를 경계한다. 역사적 내러티브는 문학과 과학성 어느 쪽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다. 역사적 내러티브는 “자연과학의 규범적 설명이 한 쪽 끝에 있고 때로는 허구적 상상까지 동원해 인간의 내면세계를 묘사하는 문학 내러티브가 다른 한 쪽 끝”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최호근, 2013, 124). 이러한 역사적 내러티브에는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의 주제로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역사교사의 세계관이 담기게 된다. 일반적인 역사관을 지닌 역사교사는 역사적 내러티브에 자유와 평등, 권선징악과 같은 세속적인

세계관을 담지만 기독교 역사관을 가진 역사 교사는 역사적 내러티브에 자신이 의식 하든 의식하지 않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기독교 역사관을 담게 된다. 따라서 기독교 역사관을 가진 역사 교사가 역사적 내러티브 방식을 통해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역사 수업을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기독교 역사관을 심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과 교육과정의 평가에서도 기독교 역사교사는 기독교 역사관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평가 또한 세계관이 개입되는 활동이다. 학습의 평가를 위한 성경적인 지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평가는 분류하는 기능을 넘어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진단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형성적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필 평가 외에도 다양한 수행을 활용한 다면적 평가를 적극 활용한다. 둘째로, 평가는 학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응답하는 행위를 하도록 돕는 것으로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며 보다 나은 배움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교사에 의한 평가 외에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을 평가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한 동료끼리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의 학습에 기여하도록 한다. 셋째로 성경적 의미에서 평가는 상대적 비교보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얼마나 잘 활용하였나를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활동이 학생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적용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성취목표로서의 준거를 분명히 하고 평가하는 준거지향 평가를 활용하도록 한다. 넷째로 성경적인 평가는 결과 자체만이 아니라 결과성취를 위한 과정과 노력도 소중히 여기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이정미, 2008: 34).

역사교사가 평가에 어떠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평가를 통해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세계관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가령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 교사가 평가를 진행한다면 학생들은 의미 없는 암기를 반복하고 기억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역사는 암기 과목이라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의 올바른 세계관 형성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이다. 반면에 역사적 사실이나 개념을 응용하여 역사적 상상력과 역사적 탐구력을 키워주는 평가를 한다면 학생들은 역사 학습을 통해 역사적 판단력을 향상시키고 종국에는 자신에게 이러한 분별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며 자신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역사교사는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이 발현되도록 하브루타, 포트폴리오, 현장견학, 프로젝트 활동 등 여러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학습의 성취라는 결과뿐만 아

나라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즉,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역사교사는 역사과 교육과정의 목표-내용-방법-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분명한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 수업을 이끌어가야 한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역사 내용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국가에서 정한 역사과 교육과정과 역사교과서라는 틀 안에서 올바른 기독교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 Ⅲ. 기독교 역사관으로 본 역사교과서의 논쟁점

#### 1. 창조론과 진화론

학생들의 기독교 역사관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역사교사의 역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역사교과서이다. 역사수업에서 역사교과서의 서술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미묘한 역사교과서의 서술태도는 학생들에게 오개념을 갖게 하거나 잘못된 세계관을 형성하게 할 우려가 있다. 기독교 역사관을 가진 역사 교사가 역사수업에서 가장 먼저 직면하는 역사교과서상의 어려움은 단연 창조론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이다. 기독교 역사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바로 그 성경의 첫머리에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지으셨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역사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조사관이라 함은 역사해석에 있어 세상 만물을 조성하신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한다.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처음 첫 장, 첫 구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인간의 기억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먼 과거의 이야기인 세상의 시작 또는 창조와 관련해서 성경은 기독교인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성경의 맨 앞부분에서 이 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창조 교리는 신자의 삶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가 된다 (김봉수, 2007: 43).

이렇게 분명한 창조 사관이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철저히 부정되고 있

다. 많은 기독교 역사 교사들이 신앙적으로는 창조론에 대해 의심하지 않지만 교실 현장에서는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은 바로 역사교과서가 진화론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학교급 별로 역사 수업의 첫 시간에 다루어지는 인간의 기원과 관련하여 현재 역사교과서에서는 진화론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물음에 진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진화론에서는 그 기원을 우연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교과서인 2009 개정 역사 교과서에서는 창조론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진화론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 인류가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금부터 약 390만 년 전으로 알려져 있다. 최초의 인류 화석은 19세기 초,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되었다.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남방의 원숭이)는 직립 보행을 함으로써 문화 창조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김덕수, 2014: 33).

(나) 인류의 진화

지금으로부터 약 60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이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진화가 시작되었다. 직립 보행을 하면서 인류는 두 손의 자유를 얻게 되어 도구를 만들어 쓸 수 있게 되었다. 약 390만 년 전 출현한, 최초의 인류로 분류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두 발로 서서 걸었고, 간단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조한욱, 2014: 27).

(다) 인류의 출현과 진화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인류는 약 400만 년 전에 출현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이다. 이들은 150만 년 전까지 아프리카에서 생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완전한 직립 보행은 아니었지만 두 발로 서서 걷고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였다(김형중, 2014: 29).

현행 고등학교 세계사 3종에서는 위에 보는 것과 같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류의 탄생을 기술하였다. 공통적으로 최초의 인류로 4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소개하고 있다. (나) 교과서는 이에 더하여 인류의 조상이 60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최초의 인류’와 ‘인류의 조상’이라는 개념을 동시에 기술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인류 개념에 대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다) 교과서에서는 인류의 출현과 진화라는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역사 속으로’라는 코너에 찰스 다윈의 “인간의 유래” 중 인간의 우수성을 밝힌 글을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존하는 가장 야만적인 인간도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한 어떤 동물보다 우수하다. 인간은 고등 동물 가운데 분포 지역이 가장 넓으며, 다른 동물들은 모두 인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 밑에 학생들에게 ‘인류가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을 던졌다. 저자가 의도한 동물보다 인간이 우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또는 ‘생각하는 힘을 가졌다’는 정도의 답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자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능력으로 의도한 도구 사용 능력이나 사유 능력의 원천을 다시 학생들이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급하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역사교사라면 지구나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러한 역사교과서의 한계를 밝히는 동시에 궁극적인 힘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또한 (가), (나), (다) 모두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한 추정일 뿐,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역사교과서에서는 한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보다는 세상과 인류의 창조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역사교사가 수업활동이나 보충 교재를 통해 학생 스스로 과학의 입장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입장이나 주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검토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이해주, 1998: 84).

## 2. 이스라엘 왕국의 성립

세계사에서 성경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헤브라이인이 세운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기술이다. 고등학교 세계사 3종의 교과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특히, 금성과 비상교육의 교과서는 거의 일치하는 서술 형태를 보였다. 기존 역사교과서 서술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나 재검토 없이 역사 서술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헤브라이인은 기원전 11세기경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이스라엘 왕국을 가나안(현재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웠다. 이 왕국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다비드 왕과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맞았으나 곧이어 부족 간의 대립으로 이스라엘과 유대, 두 나

라로 갈라졌다. 헤브라이인이 창시한 유대교는 훗날 크리스티교와 이슬람교에 큰 영향을 주었다(김덕수, 2014: 40).

헤브라이 인은 오랫동안 유목 생활을 하다가 기원전 1500년경에 가나안(현재의 팔레스타인)지역에 정착하였다. 그들이 세운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누리다가, 솔로몬 왕이 죽은 뒤 부족 사이의 대립이 심해져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하였다. 그 후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유대는 신바빌로니아 왕국에 의해 멸망하였다. 헤브라이 인은 민족적 고난을 겪으며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를 성립시켰다. 이들의 신앙과 역사를 기록한 책이 “구약성경”이며, 훗날 크리스티교와 이슬람교의 성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김형중, 2014: 38).

헤브라이는 유목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현재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도착하였다. 기원전 11세기 말, 이들은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맞았으나, 솔로몬 왕의 사후 부족 간의 대립으로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되었다. 이후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유대는 신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하여 많은 주민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다(바빌론 유수, 기원전 6세기). 헤브라이는 민족적 고난을 겪으면서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믿는 유대교를 성립시켰다. 이들의 신앙과 역사를 기록한 것이 “구약성경”이며, 유대교는 크리스티교와 이슬람교의 모체가 되었다(조한욱, 2014: 38).

헤브라이인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으며,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이루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부족 간 대립으로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되었고 결국 멸망하여 바빌론 유수라는 고초를 겪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구약성경과 현재 크리스티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고등학교 세계사 서술은 기독교 세계관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무미건조하게 유대인의 역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단순하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원인을 단순히 부족 간의 대립이라는 정치적 이유로만 언급하고 있어서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을 잘 나타내지 못했다.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에서 부족 간의 정치적 대립은 표면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을 사실 위주로만 다루거나 단순한 정치적 사건으로 역사교과서에 기술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한 사건을 세상적인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문제를 낳았다. 이러한 서술은 역사교과서 저자들의 편향성 시비에 대한 우려 또는 기독교 세계관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기독교 관련 사건을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해서 설명하지 않고 모두 일반 역사의 논리로 풀어가

게 되면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라는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는 드러나지 않고 세상적인 수많은 정치적 사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와 관련된 사건들은 단순히 세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두고 일어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을 단순한 사실로 또는 부족 간 대립이라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의 결과로만 알려주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 3. 기독교의 성립과 발전

기독교의 성립과 발전은 세계사에서 로마사 서술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다행히도 고등학교 세계사에서 로마사를 서술할 때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단순하게 나열하고 있다. 역사는 인과관계를 중요시하는 학문인데 기독교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변화상을 서술할 때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기술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적 사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가)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로마의 속주가 된 유대 지방의 주민들은 구세주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하였다. 이때 등장한 예수는 유대교의 선민사상과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민족과 신분을 초월한 신의 사랑, 평등, 인간애를 설교하였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를 선동가로 몰아 십자가형에 처하였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은 이후 제자들을 통해 제국 안에 널리 퍼졌다. 각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활동상을 담은 “신약 성서”가 편찬되었다. 로마는 개방적인 다신교 국가로, 속주의 다양한 종교를 차별 없이 수용하였다. 그리스도교도 로마에서 수용한 여러 종교 중 하나였다. 그러나 로마는 유일신을 믿는 그리스도교도들이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라 하여 거부하고 군대 복무를 하지 않아 그들을 박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의 교세는 더욱 확장되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형성하였다.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제국을 안정시키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밀라노 칙령을 내려 그리스도교를 공인하였고(313), 니케아 공회를 소집하여 아타나시우스파의 교리를 정통으로 정하였다(325). 이어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포하였다(392). 이후 그리스도교는 전 유럽에 전파되어 그리스·로마 문화와 함께 유럽 문화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김형중, 2014: 71).

(나) 고대 지중해 세계는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적 전통이 강하였다. 로마는 속주의 다

양한 종교를 수용하였는데, 그리스도교도 그중 하나였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로마의 속주가 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고난에서 구원할 구세주(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때 예수가 등장하여 유대인의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배격하고 민족과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평등을 주장하였다.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늘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선동가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 그 후 예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 의해 로마 제국에 널리 퍼졌다. 각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복음과 제자들의 행적 및 편지를 모은 “신약 성경”이 편찬되었다. 그러나 유일신 사상을 가진 그리스도교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 박해를 받게 되었다. 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카타콤바이)에서 예배를 드렸고, 하층민 중심으로 퍼졌던 그리스도교는 점차 상류층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으로(313) 그리스도교를 인정하였고,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의 교리 분쟁이 일어나자 니케아공의회를 소집하여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설을 정통교리로 확정하였다.(325) 이어 테오도시우스 1세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포하였다(392). 이후 그리스도교는 전 유럽에 전파되어 그리스 로마문화와 함께 유럽 문화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조한욱, 2014: 68).

#### (다) 그리스도교의 등장과 확산

고대 지중해 세계는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적 전통이 강하였다. 그러나 1세기 중엽 유일신 신앙인 그리스도교가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로 전파되면서 다신교와 갈등을 빚었다. 그리스도교는 초기에 로마에서 탄압을 받았지만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하여 공인되었다. 4세기 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다른 종교를 금지시키고 그리스도교를 사실상 국교로 확정하였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후 서유럽에서는 로마 교회가, 동유럽에서는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가 강력한 권위를 갖고 신앙을 주도하였다. 이후 로마 교회는 서유럽의 게르만족에게,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는 동유럽과 러시아의 슬라브족에게 교세를 확장해서 이후 유럽 문화형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김덕수, 2014: 71).

고등학교 세계사 3종의 교과서에서 기독교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다른 영역에 비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기독교가 어떻게 빠르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서술이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 학생들이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신교적 전통을 가진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유일신 신앙을 가진 기독교가 많은 갈등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에 대해서도 2가지를 기술하고 있는데, 하나는 황제숭배 거부이고 다른 하나는 군대복무 거부이다. 황제숭배거부에 대해서는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군대복무 거부에 대해서는 별 다른 거부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현재 징병제 국가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고 단순한 사실만 기술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이 국가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인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러한 세계관에 근거하여 황제숭배 거부와 군대복무 거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 공인에 대해서도 (가) 교과서에서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세가 더욱 확장되었으며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어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제국을 안정시키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 입장에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그러한 영향을 받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회심하여 기독교를 공인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 공인이라는 종교적 행위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것은 학생들에게 편협한 시각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인적인 상황을 아울러 설명함으로써 기독교 공인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각도로 학생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적 사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 교과서는 삼위일체라는 중요한 교리를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 단순히 ‘니케아 공회를 소집하여 아타나시우스와의 교리를 정통으로 정하였다(325)’고만 기술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게 하였고, 더 나아가 기독교 세계관을 인식하고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나) 교과서처럼 삼위일체 교리를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본문 옆 날개 부분에 보충 설명을 하여 학생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인식하며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니케아 공의회에서 인정한 것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과서에서는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라는 파벌적인 논쟁 또는 아타나시우스라는 개인적 인물에 초점을 두고 부정확하게 기술함으로써 삼위일체라는 기독교의 교리가 오히려 문혀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이 핵심적인 교리이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지심과 부활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 교과서의 경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를 선동

가로 몰아 십자가형에 처하였다.’로 기술하고 있다. (나) 교과서의 경우에도 ‘예수를 따르는 유대 인들이 늘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선동가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고 기술하여 두 교과서가 대동소이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유대교 지도자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벌어진 정치적 사건으로 폄하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의 구속과 대속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예언되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십자가 지심의 핵심적인 내용을 세계사 교과서에 서술하지 않고 단순한 정치적 사건으로만 기술한 것은 기독교 세계관과 동떨어진 역사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다) 교과서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 교과서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종교와 차별이 되는 것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서술이 세계사 교과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검토한 3종의 현행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는 대부분 비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일관되게 서술되어 있다. 그것이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외피를 쓰고, 때로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을 배제, 축소, 왜곡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관련 내용에 대해 기존 역사교과서의 오류를 바로 잡고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역사교과서 서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정한 역사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역사교과서를 서술하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역사 전문가나 역사교사들이 역사교과서 집필과 검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활동한 것은 근대화 과정에서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한국사 전체에서 불교나 유교에 못지않게 큰 영향을 끼쳤고, 현재 한국 사회에 대표적인 종교임에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 기독교는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 하지만 현재 역사교과서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축소하여 서술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근대화를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기독교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역사교과서에서 한국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역사교과서에서 풍수지리설이나 도교와 같은 부분은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기독교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기여한 내용은 1-2줄 정도로만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 (1) 기독교의 선교활동

기독교는 공식적인 국가의 허락으로 들어왔으며 조선정부는 기독교를 통해서 근대 문물을 받아들일려고 노력하였다. 1884년 알렌,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들은 조선에 들어와서 교육과 의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후에 애국계몽운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상당수는 개화론자였고, 이들을 통해 서구의 문화가 한국에 전달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서술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9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개항기 지식인들은 종교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서양 문명의 발전을 기독교 덕택으로 여겼고, 서양 사람들의 문화 수준이 높은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신의 문화를 굳건히 지키려는 사람에게도 ‘종교’라는 현상과 그것이 갖는 큰 힘은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중략)... 개항 초기 선교사들은 의료와 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선교를 하는 데 만족하였다. 포교의 자유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은 대한 제국 시기에 들어서였다.

개항기에는 순수한 신앙 때문이 아니라 생활의 방편으로 교회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 백성들 가운데는 서양인 선교사를 방패로 삼아 지방관의 수탈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신민회의 조직적 거점인 상동교회에 모인 우국지사들처럼 교회를 정치적 보호막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도 있었다.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대부흥회 운동을 계기로 기독교는 종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김종수, 2014: 279).

금성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기독교에 대한 서술이 양적으로 많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 먼저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를 순수한 기독교 신앙 때문이 아니라 우수한 서양 문화로 인해서 또는 정치적 방편으로 수용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이후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의 의료와 교육에 헌신한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려는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물론 그러한 정치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편협한 시각이다. 한국인의 기독교 수용은 전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앙이 성장한 결과이다. 그러한 당시 사회적 상황이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설명 없이 개개의 사례를 가지고 전체 한국의 기독교 수용을 설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당시 한국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왜 매료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와 달리 신민회의 조직적 거점이 상동교회였다는 것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한국 기독교 발전의 계기로 서술하고 ‘평양기독교의 거점 역할을 하였던 장대현 교회’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을 실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종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라는 부분이다. 이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전에는 한국의 기독교가 종교적 정체성이 불분명하였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다. 또한 분명히 하였다는 ‘종교적 정체성’도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이는 오히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 있는 뒤에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선교 문제이다. 개항 초기 선교사들은 의료와 교육을 통해 간접적 선교를 하는 데 만족하였고 포교의 자유가 대한제국 시기에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의료와 교육 자체가 선교의 한 방편으로 간접적 수단이 아니다. 마치 직접적인 선교의 수단이 따로 있는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의료와 교육을 통한 간접적 선교에 만족했다는 것도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기술에 가깝다. 그리고 당시 조선정부는 1882년 미국과 수교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포교를 묵인하였을 뿐 공식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았다. 공식적으로 포교를 허용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서술하였다면 학생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개화기에 전래된 개신교는 학교를 세우고 교아원을 운영하였으며, 서양의술을 보급하였다. 1880년대에 개신교의 선교사들은 전국을 나누어 선교활동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한글 보급, 미신 타파, 평등사상 전파 등에 이바지하였다. 고종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한 선교사들을 환대하였지만 대다수 조정의 대신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선교사들은 초기에 직접 선교하기보다는 학교와 병원을 세워 선교하였다. 아펜젤러는 1885년에 배재 학당을 언더우드는 1886년에 경신 학교를 세웠다. 1887년에는 언더우드의 주재로 2명의 장로가 선출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 교회인 새문안 교회가 세워졌다(최준채, 2014: 254).

위와 같이 리베르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는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에 끼친 영향을 ‘한글 보급, 미신 타파, 평등사상 전파’라고 간결하게 기술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중요한 변화를 이끈 원동력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인한 것인데도 그러한 기술이 없이 결과만 기술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인과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선교과정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전국을 나누어 선교활동을 벌였다’고 하는데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른바 분할협정을 시작한 것은 1892년이다. 즉, 1890년대라고 할 수 있다(백낙준, 1973: 211). 하지만 선교사들의 분할협정과 최초의 조직 교회로 새문안 교회를 소개한 것은 특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2) 기독교의 학교 설립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가 기여한 것으로 모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서술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학교 설립과 관련된 것이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기독교 학교 설립과 관련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배재 학당(1885)과 이화 학당(1886)을 설립하고, 이어 서울과 지방에 학교를 설립하여 선교 활동과 함께 근대적 학문을 가르쳤다. 한편, 애국 계몽 운동가들도 오산 학교(1907), 대성 학교(1908) 등 많은 학교를 설립하였다(권희영, 2014: 218).

서양 선교사들도 배재 학당과 이화 학당을 설립하여 근대 교육을 보급하는 데 힘을 보탰다(김종수, 2014: 276).

선교사들이 세운 배재 학당을 비롯하여 제중원 의학당, 경신 학교, 이화 학당 등은 서양식 교육을 실시하였다(왕현중, 2014: 197).

개신교 선교사들도 학교를 설립하였다. 1885년에는 배재 학당, 그 이듬해에는 이화 학당, 경신 학교 등이 세워졌다(최준채, 2014: 251).

개신교 선교사나 민족 지도자에 의한 사립학교도 설립되었다. 배재 학당, 이화 학당 등 기독교 계통의 학교는 근대 학문을 가르치고 민족의식을 일깨웠다(한철호, 2014: 230).

이 시기 서양인 선교사들도 배재 학당, 이화 학당, 정신 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이들 학교는 선교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한국 근대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도면희, 2014: 246).

개신교 선교사들은 선교와 계몽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하였다. 배재 학당, 이화 학당, 경신 학교, 정신 여학교, 숭실 학교 등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에서는 근대 학문을 가르쳤으며, 민족의식을 깨우치는 데도 이바지하였다(정재정, 2014: 261).

선교사들은 배재, 경신, 이화, 정신 등의 학교를 세워 근대 교육과 선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중 이화 학당(1886)은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이었다(주진오, 2014: 227).

비슷비슷한 서술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의 서술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학교의 설립으로 인해 한국 근대화에 끼친 영향이다. 각 교과서에는 ‘선교활동과 근대적 학문을 가르쳤다’, ‘근대 교육 보급에 힘을 보탰다.’, ‘서양식 교육을 실시하였다.’, ‘근대 학문을 가르치고,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선교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한국 근대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근대 학문을 가르쳤으며, 민족의식을 깨우치는 데도 이바지하였다.’, ‘근대 교육과 선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심지어 리베르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관련 부분에 대해 서술이 없으며 두산 동아 출판사의 경우에는 서양식 교육을 실시하였다고만 기술하였다. 또한 근대 학문을 가르친 것과 근대 교육을 확산시킨 것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는데 이를 혼용함으로써 어떠한 역사교과서로 학생들이 배웠느냐에 따라 기독교 학교의 설립으로 인한 한국 근대화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낳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교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한국 근대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비상출판사의 서술이 갖는 오해의 여지이다. 기독교 학교가 원래는 선교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의도하지 않게’ 한국 근대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분명 선교의 목적으로 근대 학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근대 학교가 한국 근대 교육의 발전이라는 목표도 이를 것을 계획하였을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선교의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한국 근대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학교 설립의 주체를 분명하게 기술하지 않거나 혼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신교 선교사라고 주체를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지만 단순히 선교사나 서양 선교사로 지칭하여 어떠한 종교에서 학교를 세웠는지 잘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두산동아 교과서의 경우처럼 ‘선교사들이 세운 배재 학당을 비롯하여 제중원 의학당,

경신 학교, 이화 학당 등은 서양식 교육을 실시하였다.’로 서술하면 개신교 선교사들이 배재 학당만 세웠고 제중원 의학당, 경신 학교, 이화 학당은 다른 주체가 세웠는데 서양식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식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정확한 기술로 학생들이 오개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역사교과서에서 기독교를 지칭하는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엔과 지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개신교’와 ‘기독교’를 혼용하고 있다. 기독교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아우르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역사교과서에 쓰는 경우에는 개신교를 지칭한다. 따라서 개신교와 기독교를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학생들이 역사교과서에서 사용된 용어로 인하여 오해를 하지 않도록 역사교과서 집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3) 기독교의 찬송가 보급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 과정에 끼친 영향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찬송가 보급이다. 아래와 같이 찬송가 보급으로 서양 근대 음악이 발달했으며, 서양식 악곡에 맞추어 부르는 창가가 유행했다는 것이다. 이때의 창가는 계몽의 목적으로 확산되었다.

기독교 계통의 학교와 교회에서 찬송가가 보급되면서 서양식 악곡에 맞추어 부르는 창가가 유행하였다. 주로 청년 학생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학도가, 권학가, 독립가, 애국가 등이 많이 불려졌다(왕현중, 2014: 99).

찬송가를 통해 서양식 악곡이 도입되면서 여기에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창가가 출현하였다. 창가는 대체로 계몽적 목적에서 지어졌는데 독립신문이 벌인 ‘애국가 짓기 캠페인’이 계기가 되었다. 이때 여러 애국가가 지어졌으며 독립가나 권학가 등의 계몽 창가들도 유행하였다(김종수, 2014: 277).

음악분야에서는 개신교 신자들이 찬송가를 보급하면서 서양 근대 음악이 소개되었다. 이에 따라 서양식 악곡에 맞추어 부르는 학도가, 독립가, 권학가 등 창가가 널리 애창되었다(최준채, 2014, 253).

하지만 아래와 같이 창가가 찬송가 확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각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마다 다르게 기술되어 있어서 창가와 기독교간의 연결성을 찾아보기

힘든 경우도 있다.

음악에서는 찬송가가 불리면서 서양의 근대 음악이 소개되었다. 또 서양식 악곡에 맞춘 창가가 유행하면서 애국가, 독립가, 권학가 등이 애창되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하였다(정재정, 2014: 265).

서양식 곡에 우리말 가사를 붙여 부르는 창가도 널리 퍼졌다(한철호, 2014: 233).

천주교·개신교 전파와 함께 성가, 찬송가 등이 도입되었다. 서양식 악곡에 가사를 붙여 부르는 창가가 유행하였고(도면희, 2014: 253),

음악에서는 서양 음악의 영향으로 창가가 나타났다. 서양의 곡조에 주로 애국과 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를 붙여 불렀다(주진오, 2014: 230).

이 외에도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당시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자유와 평등이라는 사상을 한국 사회에 자리 잡게 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일제강점기에는 거족적인 민족운동인 3·1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폐교되었으며 목숨을 위협받았다. 그리고 한글 보급, 미신타파, 근대문물 소개 등 한국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의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를 전도사업의 한 방편으로 폄하하였고(문교부, 1974: 191), 이후 그러한 서술도 점점 축소되었다. 일부 한국사 교과서에서 ‘기독교가 지나치게 복음주의를 강조하여 제국주의 열강과 함께 일제 침략을 옹호하기도 하였다.’고 기술(김한중, 2003: 134)하는 등 한국 기독교가 민족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적이며 친일적이라는 뉘앙스로 서술하여 학생들에게 잘못된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종교가 전근대의 유물이며 현대인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 선사시대와 고대에는 종교가 삶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처럼 기술하면서 현대에는 종교와 관련된 서술을 매우 소략하게 하거나 아예 빼버리기 때문이다(유요한, 2009: 19). 특히 애국계몽운동, 민족 문화, 일제의 탄압 등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의 각 종교의 기여를 소개하면서 ‘종교계’라는 말로 아울러 지칭함으로써 한국의 근대화 과정이나 민족의 독립운동에서 기독교의 기여와 역할을 충분히 소개하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 과정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며 현대 한국인에게도 사고방식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각종 차별을 반대하고 미신이나 허례허식을 멀리하며 음주나 흡연을 금지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한국 기독교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지나칠 수 없다. 한국근대사 전공자라 해도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용어나 표현에 익숙하지 않다면 기독교 관련 서술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한국근대사 전공자가 관련 부분을 집필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집필과정에서 최소한 관련 학회나 전문가에게 감수를 맡기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 IV. 결론

기독교 세계관의 창조-타락-구속이라는 큰 틀로 이와 관련한 역사교과서 내용인 인류의 탄생과 이스라엘 왕국의 성립, 기독교의 성립과 발전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기술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역사교과서 서술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역사교과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정보를 역사교과서 서술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에 편향적인 역사 서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만 역사교과서에 서술한다면 그것 또한 기독교에 대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단순하게 기독교인들과 관련된 사건을 기술하는 서술형태도 고쳐야 한다. 검토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기독교와 관련된 사건을 사실 위주나 결과 위주로만 역사교과서에 기술함으로써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역사교과서 서술의 양적 한계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고 하여도 역사의 기본인 ‘왜?’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궁금증을 풀어주기에는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와 관련된 사건들은 단순히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두고 일어난 경우가 많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그 교리로 인해 다른 종교 혹은 상이한 가치관과 종종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기독교와 관련된 사건을 단순한 사실이나 결과만

을 알려주는 것은 역사나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으로 기독교 관련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을 끌어들이게 되면 공정한 서술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편향성 시비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없이 서술하게 되면서 오히려 기독교 관련 사건을 모두 세상의 논리로 풀어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기독교 관련 사건을 제대로 설명하고 편향성 시비를 비켜나가기 위해서는 기독교 관련 서술을 할 때 그 사건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 세계관을 서술하면 될 것이다. 역사교과서마다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역사의 특수성에 대한 서술 못지않게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종교적 편향성 논란보다도 기독교 자체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서술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아울러 한국근대사에서 나타나듯 개별 종교의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같은 분량으로 비슷한 서술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각 시대별로 개개의 종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공과를 엄밀히 따져 기술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 서술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고려에서는 불교가, 조선에서는 유교가 큰 역할을 한 것처럼 한국근현대사에서는 기독교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앞서 말한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한국의 역사교과서 서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역사전문가들이 역사교과서 집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광복 이후 다양한 종교가 한국 사회에 공존하면서 큰 혼란이 없었던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한 사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 교과서 서술에 있어서 학생들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많은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문교부 (1974). **고등학교 국사**. 서울: 한국교과서주식회사.
- [Mongyobu (1974),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seoul: Koreatextbook Company.]
- 김한중 (2003).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서울: 금성출판사.
- [Kim, H.J. (2003. *the high school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extbook*. seoul: kumsung publishing.]
- 김덕수 (2014). **고등학교 세계사**. 서울: 천재교육.
- [Kim, D. S. (2014). *the high school world history textbook*. seoul: chun-jae publishing.]
- 김형중 (2014). **고등학교 세계사**. 서울: 금성출판사
- [Kim, H. J. (2014). *the high school world history textbook*. seoul: kumsung publishing.]
- 조한욱 (2014). **고등학교 세계사**. 서울: 비상교육.
- [Cho, H. W. (2014). *the high school world history textbook*. seoul: visang publishing.]
- 권희영 (2014).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교학사.
- [Kwon, H. Y. (2014),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seoul: kyohaksa publishing.]
- 김종수 (2014).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금성출판사.
- [Kim, J. S. (2014),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seoul: kumsung publishing.]
- 왕현중 (2014).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두산동아.
- [Wang, H. J. (2014),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seoul: doosandong publishing.]
- 최준채 (2014).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리베르스쿨.
- [Choi, J. C. (2014),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seoul: liberschool publishing.]
- 한철호 (2014).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미래엔.
- [Han, C. H. (2014),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seoul: miraen publishing.]
- 도면희 (2014).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비상교육.
- [Do, M. H. (2014),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seoul: visang publishing.]
- 정재정 (2014).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지학사.
- [Jung, J. J. (2014),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seoul: jihaksa publishing.]
- 주진오 (2014).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천재교육.
- [Ju, J. O. (2014),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seoul: chunjae education

- publishing.]
- 권태경 (2002). *대학청년들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 서울: 그리심.
- [Kwon, T. K. (2002). *Christian world view and history for university youth*. seoul: gresim publishing.]
- 김봉수 (2007).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서울: 그리심.
- [Kim, B. S. (2002). *A love for eternity*. seoul: gresim publishing.]
- 백낙준 (1973), *한국개신교사*. 서울: 연세대출판부.
- [Baek, N. J. (1973). *Protestant History of Korea*. seoul: Yonsei press]
- 신국원 (2005).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IVP.
- [Shin, K. W. (2005). *Nigodemo's glasses*. seoul: IVP.]
- 양승훈 (1999).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CUP.
- [Yang, S. H. (1999). *the Christian view of the world*. seoul: CUP.]
- 이승구 (2007).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 [Lee, S. G. (2007), *What is the Christian Worldview?* seoul: SFC.]
- 허승일 (2009). *다시,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서울대출판문화원,
- [Heo, S. I. (2009). *Again What is history?*. seoul: seoul-university press]
- 홍치모 (1989). *기독교 역사관*. 서울: 생능.
- [Hong, C. M. (1989). *A view of Christian history*. seoul: saengneung ]
- 홍치모 역 (1982). <기독교적 관점에서> *역사란 무엇인가*. Roy Swanstrom. *History in making*. 서울: 성광문화사.
- [Hong, C. M. (1982). <from a Christian point of view> *What is History?* seoul: sunggwang publishing. Trans. Roy Swanstrom.(1978). *History in making*. Westmont: InterVarsity Press]
- 이부형 역 (2006). *기독교적 교육과정 디딤돌*. Van Brummelen.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 a biblical path*. 서울: IVP.
- [Lee, B. H. (2006). *Christian education course steppingstone*. Seoul: IVP. Trans. Harro Van Brummelen. (2002).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 a biblical path*. Colorado: Purposeful Design Publications]
- 이정미 (2008). *기독교세계관을 지향하는 기독교초등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Lee, J. M. (2008). *Case study on the curriculum reconstruction toward Christian world view in a Christian elementary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Ehwa University, seoul, Korea.]

- 김봉수 (2003). 기독교 사관의 정립을 위한 연구. **총신대논총**, 22, 74-111.  
[Kim, B. S. (2003). A Study for Establishment of Christian Apostasy. *Chongsindaeonchong* 22, 74-111.]
- 김중희 (2013). 기독교 역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개혁논총**, 28, 187-213.  
[Kim, J. H.(2013). Christian history education, what to do?. *Korea Reformed Journal*, 28, 187-213.]
- 이진모 (2005).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문화연구**, 10, 139-163.  
[Lee, J. M. (2005). A view of Christian history, *A study of Christian culture*. 10, 139-163.]
- 이혜주 (1998). 기독교 학교의 커리큘럼의 한 예, **기독교교육연구**, 9(1), 72-107.  
[Lee, H. J. (1998). An example of a Christian school curriculum.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9(1), 72-107.]
- 유요한 (2009). 중·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 나타난 종교서술의 문제점, **종교와 문화**, 16, 39-58.]  
[Yoo, Y. H. (2009). Problems of the Religious Description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s Korean History Textbooks. *Religion and culture*. 16, 39-58.]
- 최호근 (2013). 내러티브와 역사교육, **역사교육**, 125, 95-128.  
[Choi, H. G. (2009). Narrative and History Education. *History Education* 125, 95-128.]

## 논문초록

#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역사과 교육과정과 역사교과서

허은철 (총신대학교)

현재 한국의 역사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가치중립성과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한 역사 교과서는 기독교 역사교사가 역사 수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한국의 역사 교육과정과 역사 교과서를 검토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역사 교사가 어떻게 수업을 전개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중요하다.

역사교과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정보를 역사교과서 서술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에 편향적인 역사 서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기독교와 관련된 사건을 사실 위주나 결과 위주로만 역사교과서에 기술한다면 학생들이 오개념을 가질 수 있다. 기독교 관련 사건을 제대로 설명하고 편향성 시비를 비켜나가기 위해서 기독교 관련 서술을 할 때 그 사건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 세계관을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교와 관련된 특수한 역사 서술 못지않게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도 제시되어야 한다. 종교적 편향성 논란보다도 기독교 자체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서술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종교편향성 논란을 비켜가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정확한 서술을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반기독교 정서를 자극할 수 있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역사전문가들이 역사교과서 집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관련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

**주제어 :** 기독교 세계관, 역사과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역사교사, 역사 서술